

# “한국불교 이제 영어로 배우고 익혀요”

## 조계종 교육원 한국불교 영어 가이드북 발간

템플스테이 현장에서 외국인들에게 바로 응용할 수 있는 영어 안내서가 발간됐다. 조계종 교육원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후원을 받아 <무명스님과의 대화 (Conversation with Mumyeong Sunim)>- ‘한국불교 가이드북(Guide Book for Korean Buddhism)’을 발간했다. 이 책은 무명 스님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한국불교를 쉽게 설명한 안내서로 템플스테이 현장을 비롯한 영어포교 현장 곳곳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무진 스님(스위스 법계사 주지)과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이 공동집필한 이 안내서는 순수 영어로만 구성된 국내 최초의 불교영어회화 책이다. <무명 스님과의 대화>는 △사찰예절과 불교문

화 그리고 사찰구조물의 이해 돕기 영어로 불교를 공부하고 싶은 불자들을 위한 교재 △각 승가대학 영어 교재 △청소년 포교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무진·자우 스님 공동집필**  
**외국인들에게는 영어 안내서**  
**불자들에게는 불교영어교재로**  
**템플스테이 등에서 활용 가능**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외국인들에게는 템플스테이에 대한 참여를 제고시키고 한국불교의 전문문화와 사상에 대한 이해



를 넓히는 한편, 청소년들에게는 영어를 통해 한국불교를 이해시키기 위해 발간된 책이다. 총 2권으로 구성된 안내서는 한국 사찰을 찾아 나선 외국인들이 스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불교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허공산 무차사 무명 스님과 한국불교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사이라 루카의 질문

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은 총 51개의 챗터를 두 개의 포켓북에 나누었다. 절하는 방법, 합장의 의미 등 사찰문화는 물론 왜 스님들이 머리를 깎는지, 왜 채식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공동저자인 자우 스님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쉽고 재미있게 영어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이다. 지루함을 주지 않기 위해 25챗터로 나누어 두 권으로 얇게 구성해 언제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들에게는 궁금해하는 점을 설명해줌으로써 한국불교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동학사승가대, 외국인서포터즈 등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이 책은 앞으로 각 대학과 사찰, 청소년 포교 현장 등의 교재로 쓰일 예정이다.

## 한국불교 세계화 위해 불교영어회화 책 ‘필수’

### 인터뷰 - 저자 자우 스님

“한국불교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이 있지만 실전에서 쉽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책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또 불자들이 불교 용어를 영어로 배우고 싶어도 적당한 교재가 없었어요. 이런 점에서 한국어 해석을 빼고 순수 영어회화로만 구성된 <무명 스님과의 대화>의 발간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명스님과의 대화>를 기획하고 무명 스님과 함께 공동 집필한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은 이번 교재 발간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 한다. 스님이 이 책을 기획한 것은 2007년도 부터다. <금강신문>에 기고했던 내용들을 수정보완해 책을 내고 싶었지만 그동안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출간이 보류되었다고. “사실 예전에도 불교 영어 회화책이 나온 적이 있지만 옆에 한글 해석을 달았어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에게는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되고 외국인들에게는 읽기에 불편한 책이 되어버려요. 좀 더 보완해 순수 회화 영어 책을 만들고 싶었지만 종단 차원에서 이런 일에 무심했던 게 사실이었죠.”

총제작비가 3천만원이었지만 종단의 지원금은 1천만원이었다. 스님은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 발품을 팔았다. 공동 저자인 무진 스님과 원고료는 받지 않기로 했고 기획 제작 단계에서도 스님이 직접 발로 뛰어 다니며 제작 단가를 낮추는 등 안



팍으로 노력을 기울여 3분의 1 가격으로 책을 출간할 수 있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회화책 한 권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번엔 책을 내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애를 썼던 것이 사실이에요. <무명 스님과의 대화> 발간을 계기로 불교계가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기초작업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합니다.”

정혜숙 기자 bwjs@hyunbul.com

## 외국인 스님 “의료비·학비 지원 절실”

### 조계종 교육원 연수서 한목소리... 11~12일 경주서 개최

조계종 외국인 스님들이 의료보험비와 학비의 부담으로 수행과 학업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주장은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웅)이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경주 일원에서 진행된 ‘2014 조계종 외국인 스님 연수’에서 제기됐다.

연수 프로그램 중 ‘대화의 시간’에서 외국인 스님들은 한국에서의 어려움과 수행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했다. 특히 스님들은 외국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으로 의료보험 문제와 학비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 스님들은 “외국인의 경우 일부 사중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매월 5~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으며 “외국인 스님이 동국대 등 종합대학이나 대학원에



조계종 교육원은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경주 일원에서 외국인 스님 연수를 진행했다. 사진은 선배 스님들과의 대화의 시간 모습.

## “몸과 마음 모두 치유하는 동국대 병원 되길”

### 동국대 일산병원 법당 9일 증축기념 삼존불 점안 봉사

동국대 일산병원 법당이 증축봉사를 통해 3배 이상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기념하는 삼존불 점안봉회를 봉행했다.

동국대 일산병원은 4월 9일 조계종 저자 동주 스님의 집전 하에 증축봉사 기념 삼존불 점안봉회를 열었다. 이날 의식은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동국대 이사 일면, 명신, 미산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동국대 법인 사무처장 중민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 한 마음선원 이사장 혜원 스님, 김희옥 동국



동국대 일산병원은 4월 9일 법당 증축기념 삼존불 점안봉회를 봉행했다.

## 대한불교진흥원 균법당 등에 불서 전달

### 22종 1천8백여 권 자비나눔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이 4월 16일 불서 1천8백여 권을 전국 균법당과 교도소 등에 전달했다. ‘문화를 통한 불교 포교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행사에서 불교진흥원은 전국 교도소 60여 곳과 균법당 130여 곳에 불서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불서는 22종 1,800여 권으로 도서출판 솔바람과 도서출판 민족사, 불광출판사, 도서출판 운주사에서 발행한 <부처님생애> <나라를 구한 스님 사명대사> <붓다 수업> <스무 살의 명상책> 등이다.

정혜숙 기자

## “지속가능 남북교류모델 창출할 것”

### 민추본 14일 대북 로드맵 발표

조계종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추본)가 북한 주요지역 교류거점 마련하고 성지순례 연계 관광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추본은 4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남북불교교류 활성화 위한 좌담회 ‘민추본 2.0을 말한다’를 개최했다. ‘민추본 2.0’은 지난 2월 민추본이 발표한 중장기 대북사업 로드맵이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민추본 2.0에 대한 세부사업도 공개됐다.

이미 대북인도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북핵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추본은 민추본 2.0의

주요사업으로 △북한주요지역 교류거점 마련 △통일외식 확산 △남북불교 경험사업 △불교교류건설령 북한불교문화재 공동보존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강산 지역으로 국한됐던 남북교류를 평양, 개성 등으로 확대해 평

### 평양불교회관·교류 거점 마련 성지순례 등 불교 경험도 구상

양불교문화회관 건립과 개성지역 사찰 불사를 추진하고(북한주요지역 교류거점 마련), 지역, 역사적 연계성을 발굴해 남북 사찰간 교류를 활성화하며(남북불교 건설령), 북한사찰 성지순례 관광사업(불교경

협사업)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이같은 민추본의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의문이 제기됐다. 민추본의 현재 조직구성과 재무구조로는 이러한 사업을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외부적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불교계 내부에서 대북사업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고 중도들을 설득해 민추본 사업의 동력이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구 조계종 총무원 기획팀장은 “민추본이 통일과 불교 등 비전을 확실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종단의 통일사업이 중도들에게 당위로 다가올 수 있도록 사찰 순회교육 등을 통해 눈높이를 맞춰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기자

## 一心大覺

大聖 석가모니불의 大覺 佛敎思想을 宣布하며 기미년 3.1독립운동의 민족대표 33인중 한분이신 용성진중조사의 대각사상·구국사상·호국사상을 계승합니다. 계승 발전을 통해 불교 정신문화를 선도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임원 일동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2  
 Tel. (02) 765-2701, Fax. (02) 741-1385



한국불교  
지성화  
대중화  
생활화의  
대승

백용성  
조사

### 불기 2558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을유년(서기1945년) 8.15광복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선생님이 서기 1945년 11월 23일 중국 중경에서 귀국하여, 그해 12월 12일에 용성 진중(白龍城)조사의 창건도량이고 기미년 3.1독립운동의 진원지인 서울 종로 대각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방문하여서 불전에 예배하고 용성 진중(白龍城)조사 영정에 예배하면서 귀국인사를 올리며 “용성스님께서 계속 보내주시는 독립운동자금으로 나라의 광복을 맞이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한 윤봉길의사를 보내주시어 만대 귀국 충절 순국의 사표가 되도록 하여주셨나이다” 하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장산도업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추서  
 1990년 10월 9일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추서